



2018년 CBS 입사
현 CBS TV <다음세움2> 패널
현 CBS TV 뉴스 앵커
현 CBS 표준FM 주말
<그대 창가에 채선아입니다> 진행

방송

人

사심 인터뷰

채선아

CBS 아나운서

2018년 CBS는 공채를 통해 30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이제 갓 신입티를 벗어나고 있는 이 막내들은 CBS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터인데, 이중 입사 전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을 쌓고, 현재는 뉴스 앵커와 라디오 진행, 프로그램 패널 등 활발한 모습으로 시청취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채선아 아나운서를 만나보았다. 누구보다 취준생의 마음을 잘 알고,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채선아 아나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일도 많은 그녀는 인터뷰 내내 시시콜콜한 얘기를 곁들이며 입가에 연신 미소를 지었다. 상황에 맞게 분위기를 바꾸는 내공을 겸비하여, 프로의 면모를 보이는 그녀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자.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안녕하세요. 월간 방송과기술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신입 아나운서 채선아입니다. 2월호 인터뷰 내용 중 한 분이 본인을 회사의 ‘허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CBS의 ‘발’이자 ‘발바닥’이라고 생각해요. CBS를 지탱하는 축이고, 신입사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본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저희 동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 3월부터 CBS TV 뉴스 앵커와 CBS 98.1MHz 표준FM 주말 <그대 창가에 채선아입니다>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많은 시·청취 부탁드립니다.

입사를 위해 ‘이런 것도 해봤다’라는 일이 있다면요?

저는 동네 도서관을 다니며, 입사 준비를 많이 했어요. 평범한 열람실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열람실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린이실은 아동,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세계사, 미술사와 같은 주제의 책이 많았고, 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었어요. 아나운서라면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찾았고, 마음도 편안해졌고요.

특히, 어린이들의 동시를 많이 봤는데, ‘콩’이라는 동시가 생각나요. 대략 내용이 ‘콩, 너는 걸으면서도 너의 이름을 거는구나, 콩, 콩콩, 콩콩콩콩’이었는데 짧은 문장에 책임감이라는 가치관과 개념을 넣은 거예요. 어려운 말을 동시는 쉽게 풀고 있는 것 같아 즐겨 봤어요.

그리고 ‘입사를 위해 퇴사를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프리랜서로 여러 활동 중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아나운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롭기도 했었고, 혼자라는 생각이 늘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결국 과감히 포기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아나운서라는 일에 대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봐요.

입사 1년이 지났는데, 입사 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먼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준비생 시절 돈 없던 설움을 벗어나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한 커피 매장의 커피를 좋아했었는데, 매번 사 먹기는 어려웠어요. 입사하고는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사 먹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었죠.(웃음)

다른 변화는 알람이 많아졌어요. 알람이 ‘분’ 단위로 생긴 거예요.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 시작 20분 전, 15분 전 이렇게 알람을 설정하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알람으로 가득해요. 입사 전에는 ‘시간’ 단위였다면, 잊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분’ 단위로 하게 되었어요.

또, 메모 습관도 늘었어요. 일상생활을 하며, 중요한 문장이나 문구를 기억해서 시·청취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메모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청소왕이자 정리왕 ‘곤도 마리에’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시거든요. 그 분이 청소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청소를 하고 싶어져요. 제삼자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의 의견과 말이 쉽게 와 닿는다고 보았을 때, 제가 가진 얕은 삶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조언해드리는 건 아직 부족하다고 봐요. 업무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언젠가의 더 나은 저를 위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다음세움2’ 패널과 뉴스 앵커, 라디오 등 진행하시는데, 각 역할에서 다른 점과 그날의 방송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는?

음, 그 역할의 분위기를 본다고 할까요. 다음세움은 다음 세대의 의견을 듣는 프로예요. 제가 패널로 다음 세대의 생각을 말하는 역할인데, 제 생각이 다음 세대 전체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해진다고 할까요.

뉴스는 처음에 제가 진행하는 것을 본 선배님께서 AI, 로봇 같다고 하셨어요. 안 틀리려고 앞에 쓰인 대로 읽는 것이 아닌 내용을 읽었을 때의 감정에 충실해지라고 조언해주셨어요. ‘불이 났다’는 소식에서는 ‘불이 나서 어찌지’라는 마음이 들게 마련이고, 정치인이 망언했을 때는 ‘잘못한 거 아닌가’하는... 이런 느낌에 솔직해지는 거죠. 뉴스 내용을 보며 사전에 생각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방송에서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주관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앵커가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중 에피소드를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라디오 팝송 프로그램을 대신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수 이름과 곡 제목을 바꿔 말한 거예요.(웃음) 저는 말하고도 잘 몰랐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보며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었어요.

또, 주말 새벽에 당직 중이었는데, 아침이라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평일에 다시 연락을 주시라고 말하는 찰나에 ‘채선아 아나운서’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앞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도 누가 무심코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신호 꼭 지키고요. 직업 덕분에 한결(?) 정직해졌어요.

이건 황당했던 일인데, 뉴스를 마칠 때 제가 마지막 멘트로 ‘CBS 뉴스 채선아였습니다.’하고 그 뒤에 ‘CBS’가 붙게 돼요. 3분 40초 뉴스라면, 3분 37초에 CBS라고 나와요. 36초까지는 위의 멘트를 전부 끝내야 하는데, 제가 한번은 ‘CBS 뉴스 채선아였’까지만 방송에 나가게 되고, 바로 ‘CBS’가 붙어서 어색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저였지만 지금은 잘 해내고 있어요.(웃음)

주말이나 여가를 보내는 평소 취미와 현재 배우고 있는 일이 있나요?

취준생 때 생긴 취미로는 러닝, 달리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동네 주변을 걸어 다녔는데, 주위 분들이 걷지 말고 뛰어보라고 하셔서, 그 말 듣고 뛰어봤는데, 머릿속도 정리되고, 좋은 거예요. 덕분에 10km 정도는 가뿐



히(?) 뭘답니까. 배우는 걸 좋아해서 요즘에는 골프에 도전 중이에요. 처음에는 연습해도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공 대신 제가 날아가고 싶을 만큼 말이지요. 스윙해도 공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그냥 하자, 이게 뭐라고’라고 생각하고 스윙했는데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아나운서 일도 비슷한 거 같아요. ‘이번 뉴스 정말 잘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막상 방송 들어가서는 인사부터 틀리더라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 적절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일로는 하루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며 한가롭게 라디오를 들어보고 싶어요. 직접 운전하며 라디오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 느껴보고 싶어요. 한 번에 운전면허 취득하도록 기도해주세요.(웃음)

CBS에서 '이것만은 내가 최고'라는 능력은?

많이 고민한 질문이에요.(웃음) 이 질문은 미용실에 가서 답을 얻었어요. 미용사 분이 제 머리를 손보시면서 “두피가 다른 분들보다 엄청 ‘말랑말랑’ 하시네요.”라는 거예요. 두피가 말랑말랑하다는 말에서 ‘무언가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배우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인데, 그런 점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독립영화도 잘 안 보다가 누가 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제는 찾아서 보고요. ‘확고하게 이게 좋아’라는 느낌보다는 호기심이 발동하면 바로 행동하는 편이에요. 결론은 제가 CBS에서 가장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자신은 있다는 거예요.(웃음)

최근 재밌게 본 영화와 책

먼저, ‘줄리 & 줄리아’라는 영화예요. 줄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요리사인데, 500개의 레시피를 책으로 써요. 그 후에 이 책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줄리아라는 사람이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 365일 동안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는 줄거리예요. 줄리아가 평소에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후기를 계속해서 작성하는 장면을 보며, 저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도 계획이나 결심을 하루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잘 못 지키는 편이지만 끝까지 성공하지 못해도 자신과 약속을 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책도 좋아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고양이’를 최근에 인상 깊게 봤어요. 고양이가 바라본 인간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고양이가 인간

을 봤을 때 ‘인간은 항상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다시 3보 전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구를 보고 나니 저도 입사하고, 회사 일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는 무언가 안 좋은 일도 있을 거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2보를 후퇴하더라도 그다음에 3보를 전진할 거니까 결국 그 전보다 1보씩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2보 후퇴하게 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련이 와도 한 발은 나아가게 된다’라는 마음으로 굳세게 살고 있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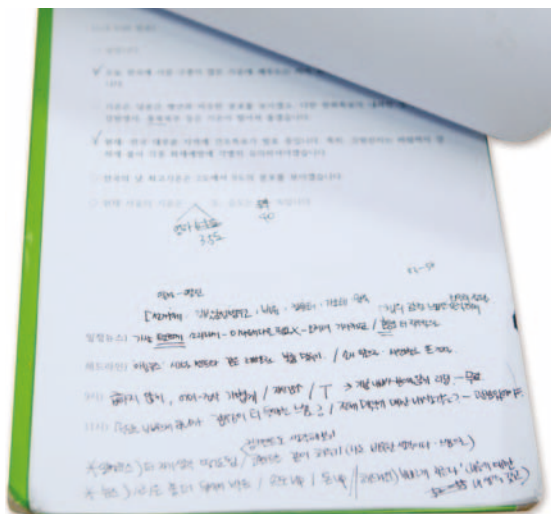
아나운서가 아닌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이 있다면?

무언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저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반면 온전한 나로서, 뒤에서 돕는 역할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기술인분들이 그런 편이신데, 제가 모르는 고층과 애로사항이 또 있겠죠?

다른 일로는 제가 예전에 할머니랑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갈 곳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루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창가에서 지나가는 전철을 세 보셨다는 거예요. 몇 량의 전철인지 세어보셨다는 건데,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할 일이 없다는 것과 외로움이 현재 우리 주위의 노인분들의 현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 제가 가진 힘으로 사람을 돕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 또 다른 삶의 행복이 아닐까 해요. 그 밖에 소품을 제작하는 공방이나 작가에도 관심 있고, 정식으로 인터뷰어도 해보고 싶은데, 다 할 수 있겠죠?

채선아 아나운서에게 시·청취자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습니다.

약간은 정해진 답이긴 하지만 시·청취자는 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요. 시·청취자가 없으면 아나운서라는 업무도 없어지죠. 한 명의 시·청취자 위해서라도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건 저 뿐만 아니라 회사도, 엔지니어도, PD도, 모든 방송인들이 힘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 바람으로는 청취자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허무하지 않았으면 해요. 청취자 마음속에 무언가 한마디라도, 한 곡이라도 남기는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 생방송 후 매일 다시 들어보고 고칠 점을 적는 채선아 아나운서